



물이 좋아야 차맛도 제대로...



“차는 물의 신(神), 마음 정신(正心)이요, 물은 차의 몸(體)이니, 제대로 된 물이 아니면 그 신이 나타나지 않고, 제대로 된 차가 아니면 그 몸을 나타낼 수 없다.” -<다신전(茶神傳)> ‘품천(品泉)’

우리 몸을 구성하는 60~70%가 물이듯, 차에 있어 물은 그 몸을 이루는 중요한 구성요소다. 때문에 예부터 차인들은 어떤 물로 차를 우려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제대로 된 물이 있어야 하고, 제대로 된 물이라도 어떻게 끓이느냐에 따라 차의 생명이 좌우된다고 여긴 것이다.

초의 스님은 <다신전>에서 “흘러 움직이는 물이 고여 있는 물보다 나으며, 응달진 곳에서 나는 물이 양지의 물보다 좋다. 참된 근원의 물은 맛이 없으며, 참된 물은 향기가 없다”고 이르고 있다.

수돗물은 하루 침전후 윗물만 사용 2~3분 끓여야 잡냄새 없앨수 있어

물이 맑고 맛이 좋은 것으로 널리 알려진 우리나라지만, 오늘날 ‘좋은 물’을 구하기란 쉽지 않다. 현대인들 중 산에서 흐르는 물이나 강물이라고 해서 아무 의심 없이 마시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공장 폐수나 각종 쓰레기, 농약 등에 오염된 물이 너무나 많은 탓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차인들은 시중에 판매되는 생수나 약수물 혹은 수돗물을 정화해서 차를 달인다. 하지만 생수는 가격도 비쌀 뿐 아니라 제품마다 성분이 다르고 개봉한 뒤 상온에 오래 두면 맛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집 근처의 약수터에서 떠 온 약수라 하더라도 탄산가스나 유황 성분이 많은 물은 차의 본성을 해치므로 좋지 않다.

살균 처리를 거친 수돗물을 쓸 때는 수도꼭지를 충분히 열어 물을 흘러보내고 받은 후 하루 정도 침전시켜 윗물만 사용한다. 수돗물이나 정수기에 거른 물은 웅기 향이나 유리병에 자갈, 맥반석, 굵은 모래 등을 깨끗이 씻어서 넣고 물을 가라앉히면 깨끗하고 맛있는 물을 얻을 수 있다. 수돗물을 끓일 때는 2~3분간 끓인 후 주전자의 뚜껑을 열어놓고 잠시 더 끓여야 잡냄새를 제거할 수 있다. 여수령 기자



<향물로 유명한 사찰약수>

▷ **해남 대흥사 일지암 유천**
일지암에는 초의 스님이 “물의 여덟 가지 덕목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평했던 샘물인 유천(乳川)이 있다. ‘젓샘’이라는 뜻의 이름처럼 샘물이 희뿌연 색을 띄고 있고 물맛도 달콤하다. 해남 대흥사에서 열리는 ‘초의문화제’는 이곳에서 떠 온 물로 차를 우려 부처님께 바치는 헌공다례로 시작할 정도다.

▷ **아산 인취사 샘물**
백제시대에 지어져 전해오는 인취사의 샘물은 부어 고란사 샘물과 더불어 물 맛 좋기로 유명하다. 무색 무미 무취의 이 물은 차를 우려기에 더 없이 좋은 물로 꼽힌다.

▷ **구례 화엄사 옥천**
화엄사는 쌍계사와 함께 우리나라 차문화의 중심지다. 범종각 북서쪽의 울창한 동백숲 아래서 솟는 옥천(玉泉)이 바로 화엄사 차맛의 전통을 지켜온 샘물이다. 화엄사 스님들은 차물을 달일 때 꼭 이 물을 썼다고 한다.

▷ **강화 정수사**
정수사 샘물 역시 물 맛 좋기로 손꼽힌다. 지난해 한일수교 40주년 기념으로 열린 ‘한일 차문화 식문화 교류전’에 참가한 쓰쿠다 이카사(일차암 14대 이에모토)는 직접 정수사의 약수를 떠와 전차 시연에 사용하기도 했다.

2005 티월드 페스티벌 개최 서울 코엑스 인도양홀(6월 15~19일)

“2005 티월드 페스티벌은 지난해 보다 더 커진 규모에 학술세미나와 일반인들을 위한 차 강연회, 세계 명차 특별전 등 알찬 행사로 꾸며질 것입니다.”

우리나라 차 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티월드 페스티벌’이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코엑스 인도양홀에서 펼쳐진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티월드 페스티벌은 차 산업에 대한 관심을 고조하고 차인구 주변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열리는 국내 최대의 차산업 박람회다. 티월드 페스티벌 추진위원회(위원장 김경순)는 지난해

“우리 차 세계화 기대”

130여 업체가 참가하고 3만4천여 명이 관람한데 이어 올해는 150여 업체와 4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행사 장소를 인도양홀과 그랜드 호텔, 야외전시관으로 확대하고 차 관련 업체들의 전시와 학술포럼, 세계 명차 특별전, 중국차사호전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중국과 일본을 비롯해 태국, 네팔, 스리랑카 등 아시아 주요 차 생산국 10여 곳이 참가해 자국의 차문화를 선보인다. 또한 추진위원회는 ‘중국 차사호전’과 ‘다식 특별전’ 등의 행사를 개최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김 위원장은 “티월드 페스티벌과 우리 차문화를 알리기 위해 중국과 일본의 차 박람회에 참가했는데 아직 우리 차문화가 거의 알려지지 않아 안타까웠다”며 “티월드 페스티벌이 우리 차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창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2)6000-8000 여수령 기자



뇌원차 생산, 공물·중신 하사품으로 사용

밖에 없었다.
특기한 것은 고유의 뇌원차(腦原茶)가 생산되어 외국의 공물로도 사용되고 중신들이 사망하면 궁에서 차를 하사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다방(茶房)은 부서를 더욱 확장해 책임자의 직위를 높였다.
중국에서는 다서가 계속 쓰여졌고 임포(林浦), 정위(丁謂), 섭청신(葉淸臣), 채양(蔡襄) 등이 활동했다. 일본은 아직 선가(禪家)나 왕실을 제외하면 내세를 차에 관한 사료가 없다.

① 차를 파는 점포가 있었음을 말한다. <고려사>
② 문하시중 한언공이 죽으니 쌀 오백 석과 차 이백 석을 내렸다.
③ 번방의 장졸 유족이나 장졸들에게 차와 다포를 내렸다는 것은 그만큼 차의 보급이 넓어졌음을 말한다.
④ 현종 때 적이 온다는 소문이 있어 내시부와 다방 군사들도 모두 중군계 함.
⑤ 국내에서 생산되는 고급차인 뇌원차를 거란에 보내는 공물에 넣었더니 다음 해에 거란 쪽에서 더 많이 보내라는 요청이 왔다.
⑥ 이주좌(李周佐)는 경주 사람으로 형부상서로 죽으니 왕이 차와 의복을 내렸다.
⑦ 다방 채의 소감 김정악이 나이가 많아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나고자 했지만 더 공직하게 했다.

⑧ 구양수(歐陽修, 1007~1072): 송대 사람. 당송 팔대가에 드는 문인으로 차를 좋아해서 <용다록후사> <대명수기> <부차산수기> 등의 다서를 남김
⑨ 주봉: <보다경(補茶經)>을 쓴 문인
정위: 송대의 대신. 진국공(晉國公) 차를 즐겨 용봉차 만들기 시작했다 <북원다록(北苑茶錄)> <다도(茶圖)>를 지었다.
⑩ 임포(967~1061): 송대 은사(隱士)로 매 처학자(梅妻鶴子)라는 칭호가 있었다. 차를 즐겨 많은 글을 남겼다.
⑪ 송기(998~1061): 송대 문인. 차를 즐겨 <감로차찬(甘露茶贊)>을 남김
포중(999~1062): 송대 정치인으로 <논다법주(論茶法奏)>를 남겼다.
⑫ 채양(1012~1067): 송대 차학자. <다록> 양편(兩篇)을 썼다. ■성균관대 예대다학

시대별 연표

한 국	중 국
1002 다점(茶店)이 있었다. ①	1007 구양수의 출생 ⑧
1004 한언공(韓淸恭)의 죽음 ②	
1007 노인(老人)에게 차를 내림	
1009 80세 이상인 백성에게 음식과 차를 하사	
1010 대장경 간행, 연등회 팔관회 개최 차 하사	1012 제양(蔡襄)의 출생
1014 번방 장졸 유가에게 차 하사 ③	
1018 교위(敎尉)와 선두(殿頭) 이하 정졸에게 다포를 내리다	@ 주봉(周鼎), 정위(丁謂)의 활동 ⑨
1019 송나라 상인 100여 명이 토산물을 바침	송 대
1021 90세 이상인 재계(宰階) 다약(茶藥)을 내리다	
1022 80세 이상인 병약자에게 차와 포를 내리다	1028 임포(林浦)포의 타계 ⑩
1025 다방군사로 중군사김 ④	
1038 거란에 뇌원차를 보냄 ⑤	1033 송기(宋祁), 포중(包拯)이 활동함 ⑪
1040 이주좌가 죽음 ⑥	
1047 다방 태의소감 김정악 ⑦	
1049 최봉성 등 노인에게 뇌원차 하사	1049 <다록(茶錄)> ⑫



좋은 책, 향기로운 삶

월간 다도 과일호를 판매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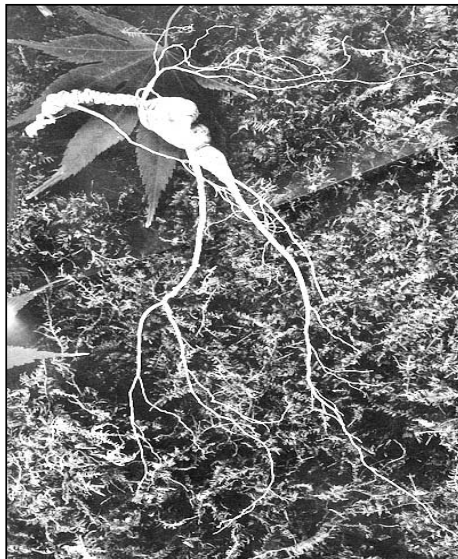
과일호의 권장 가격은 5,000원

문의전화 | 02)722-7777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양” 山蔘 長腦

존경하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중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본후에는 上蔘 120가지 中蔘 120가지 下蔘 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蔘중의 첫째가는 君蔘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중, 지중, 인중,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건조되는 산물이 될 것입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 중독, 나병, 알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 방사선병, 조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정체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善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佛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轉進하시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려고 하오니 부담없이 別進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 (02) 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국검필(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 山蔘